



공정위 기자회견

‘계란 가격담합 및 불공정고발’ 신속 조사 요청



본회는 지난 1월 28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정문 앞에서 ‘달걀 가격담합 및 불공정 고발(19.1.21일 접수)’에 대한 기자회견을 실시했다. 현재 농가와 식용란수집판매업자(유통상인)의 거래에서 대금결제는 대부분 사후정산 거래 방식 일명 ‘후장기제도’로 이뤄지는 과정에서 일부 유통상인의 담합이 의심되는 수십원 할인 되어 통일된 가격으로 농가에 가격을 통보하고 심지어 산지조사가격의 인상마저도 요구하는 상황이다. 이에 계란산업의 빠른 안정화를 위하여 일부 유통 상인들의 담합과 불공정 의혹을 ‘신속 조사’할 것을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요청했다.

청주지법에 집행정지 신청

난각 산란일자 표기 시행 집행정지 신청

본회는 지난 1월 30일 청주지법을 방문하여 ‘난각 산란일자 표기 시행 집행정지 신청’ 접수



를 마쳤다. 식약처가 고시한 ‘축산물의 표시기준’과 관련해 난각에 산란일자를 표기할 경우 산업적으로 올 피해를 무시한 채, 소비자의 알 권리를 앞세워 무조건 강행하려는 식약처의 행위에 대해 법원에서 명확히 판단하여 제도를 개정하거나 피해 구제책을 마련한 후 시행될 수 있도록 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식약처장, 검찰 고발

식약처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본회는 지난 1일 중앙지방검찰청에 식약처장에 대한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하여 잘못된 행정조치를 바로잡아 달라고 요구하는 고발장을 검찰총장에 제출했다. 고발내용은 직권남용① 고시범위를 벗어난

유권해석 ② 개정내용관련 특정단체 유착의혹 ③ 고시개정하면서 세척기준 삭제 ④ 식용란선별포장업 부당허가 등 4가지 항목)과 직무유기 (① 고시개정으로 불량계란유통 방조 ② 가공란 관련 안전기준 무력화 ③ 세척기준 확대 해석으로 계란안전성 후퇴 등 3가지 항목) 건이다.

계란 난각 산란일자표기 철회 및 식용란 선별포장업 유예

천막농성 종료



본회는 지난 21일 ‘계란 난각의 산란일자 표기 철회 및 식용란선별포장업 유예를 위한 투쟁’을 식약처·농림부와 계란 안전관리강화 대책에 합의하고 투쟁을 종료하기로 하였다. 본회는 지난 12월 14일 식약처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달걀 난각의 산란일자 표기 철회 및 식용란선별포장업 유예를 요구하고 천막농성에 돌입했으나, 농성 70일만에 투쟁을 종료하였다.

전국난가조사위원회

실거래가 가격 발표

전국난가조사위원회(위원장 남기훈)이 지난



12일 충북 오송 소재 식약처 앞 농성장에서 개최되었다. 본회에서는 지난 1월 13일 본회 발표 가격과 거래가격의 격차가 커지면서 가격 공시를 잠정 중단했었다. 이날 회의를 통해 공정한 가격발표를 위해 농장에서 실제 거래되는 가격을 본회에서 통합·발표하기로 하였다. 이에 2월 13일 왕란(수도권) 기준 137원에서 유통가격 70원을 제외한 67원으로 발표됐다.

이웃사랑 계란 나눔 행사

철곡·성주·고령 3개 지역 계란 6만개 전달



본회(회장 이홍재)는 지난 1월 24일 철곡군·성주군·고령군 3개 지자체에 계란 6만개(시가 750만원 상당)를 전달했다. 지역사회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 진행한 이번 계란 나눔 행사에는 본회에서 3개 지자체 복지단체 기관장을 만나 행사 취지를 전달하고 계란 6만개(한국양계농

협 4만5천개, 대구경북도지회 1만5천개 후원)를 복지단체 및 저소득층 가정에 전달하였다. 이날은 대구경북도지회 김진남 지회장, 한국양계농협 김진석 영남본부장, 한국양계농협 영천유통센터 장정훈 센터장, 칠곡 장애인복지관 김영식 관장, 성주 종합사회복지관 이한성 관장, 고령 대창양로원 신월식 원장 등이 참석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2019 제1차 이사회

2018 결산보고 및 2019 사업계획(안)



본회는 지난 14일 충청북도 청주시 오송종합사회복지관에서 2019년도 제1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사항으로는 ▲ 2018년 결산감사보고 ▲ 2018년 수입지출 결산 보고 ▲ 2018년 사업추진실적 보고 ▲ 계란 안전성 관련 추진사항 보고 ▲ SI 관련 추진사항 보고가 있었고, 의결사항으로는 ▲ 2019년도 수지예산(안) ▲ 2019년도 사업계획(안) ▲정관개정(안) ▲2019년 양계산업 발전 유공자 포상계획(안)이 있었다. 기타사항으로는 ▲2019년 정기총회 개최 계획(안)이 있었다. 회의를 통해 2월 27일에 대전 선샤인호텔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채란위원회

긴급확대회의 개최

채란위원회(위원장 남기훈)는 지난 20일 청주시 오송읍 소재 충북대학교 약학대학관에서 긴급 채란확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난각에 산란일자표기 시행과 식용란선별포장업과 관련하여 국회 간담회 내용을 설명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산란일 표기가 기정사실화 되면서 차후 문제가 발생시 즉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키로 했으며, 식용란선별포장업이 개인 GP 의무화가 광역GP사업 추진으로 선회하면서 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정책에 적극 협조키로 하였다. 향후 사육면적 확대 등 수급조절 방안도 논의되었다.

육계위원회

2018 추진사항 및 2019 사업예산(안) 검토

육계위원회(위원장 오세진)은 지난 20일 청주시 오송읍 소재 충북대학교 약학대학관에서 육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날 보고 및 논의사항으로는 ▲2018년 육계위원회 추진사항 ▲2019년 닭고기자조금 사업예산(안)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 일부 개정 ▲육계 사육환경별 생산성 조사 보고회가 있었다. 회의를 통해 2019년 닭고기자조금 사업예산의 비용절감과 계열사 자조금 납부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지회 · 지부 소식

의성육계지부

5, 6대 지부장 이·취임식



의성육계지부(지부장 최우영)은 지난 23일 경북 의성군 소재 의성축협 2층 회의실에서 의성육계 제 5, 6대 지부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본회 이홍재 회장, 오세진 부회장, 남기훈 부회장, 김진남 대구경북도지회장 및 의성육계 지부 회원들이 참석해 이규복 전 지부장의 그 간 수고에 감사하고 새로운 제 6대 최우영 지부장의 취임을 축하했다. 최우영 지부장은 “의성육계의 단합과 양계협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당진종계지부

지부장 변경

당진종계지부(지부장 신현민)는 지난 1월 회의를 통해 지부장을 변경했다. 새롭게 지부장을 맡은 신현민 지부장은 “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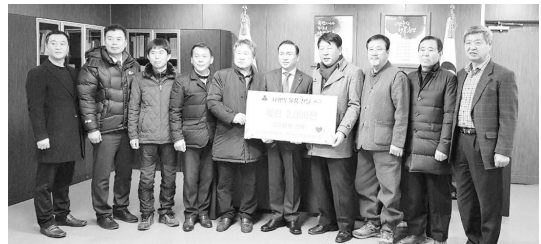


▲ 신현민 지부장

진종계지부의 발전과 단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천안채란지부 · 천안육계지부

계란나눔행사



천안채란지부(지부장 정종필)와 천안육계지부(지부장 김의겸)는 지난 1월 31일 천안시청 앞에서 계란나눔행사를 진행했다. 이날은 남기훈 채란위원장(본회 부회장)과 대전충남양계농협 최성천 조합장 등 함께 참석한 가운데 지역사회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 구분영 시장을 만나 행사 취지를 전하고 계란 2,000판(500만원 상당)을 지역 내 불우이웃 등 소외계층에게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내기를 바라는 뜻으로 전달하는 자리를 가졌다.

〈정정합니다〉

본지 2월호에 소개된 업체탐방(미성) 내용중 잘못된 부분이 있어 정정합니다.

129쪽 우측 9줄 1985년부터 5년

→1987년부터 3년

130쪽 우측 5줄 유빈양계기구→ 6인양계기구

9줄 진영케이지→ 진영축산기계

132쪽 좌측 아래서 3줄 상지대학교 2학년

→ 상지대학교 동물자원학과 3학년 편입